



국무총리, 시화·화옹지구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현장 점검

- 수도권 최대 재생E 잠재량을 가진 시화·화옹지구 농업용지 현장 점검
- 에너지 안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후부·농식품부 긴밀한 협조 주문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(수) 오후,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가진 시화·화옹 지구 농업용지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후부,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개발계획을 논의하였다.

* (참석)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,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,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,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,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,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

** (시화·화옹지구)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 안성·화성시 해안가 일대에 3천만평 (1만ha) 규모로 간척사업 추진 중

○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로 조성인 대규모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김 총리는 시화·화옹 지구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확고한 만큼 문제는 속도와 집행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.

○ 특히, 수도권인 시화·화옹지구는 영농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결합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,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도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평가하고,

○ 농식품부, 기후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

○ 한편, 한편 김 총리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영농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하였다.

□ 또한, 김 총리는 향후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접경 지역,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모든 가용한 공간을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, 직접 점검할 계획도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도헌 (044-200-2216)
		담당자	사무관	유용상 (044-200-2218)

